

신라 한주 관방시설 정비의 군사사적 의미*

윤성호**

-
- I. 머리말
 - II. 신라 북진기 주요 거점의 축성
 - III. 7세기를 전후한 동시다발적 관방시설의 축조
 - IV. 신라 한주 관방시설의 특징과 의미
 - V. 맺음말
-

【국문초록】

6세기 중반 신라의 북진기에는 신복속지에 대한 지배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였다. 신라는 신주의 치소와 대중국 해상 교역로의 출발점을 연결하는 교통로를 중심으로 관방시설을 구축하였다. 이 시기에 하남 이성산성, 화성 당성, 안성 죽주산성, 용인 할미산성이 축조되었다.

6세기 후반에 고구려가 신라에 대한 공세를 시작하면서 한강 이북 지역의 상황은 불안해졌다. 신라는 7세기 초에 북한산성 전투를 통해서 한강 이북지역부터 회복하려는 고구려의 시도를 무산시켰다. 이러한 과정에서 신라는 신주의 대민지배를 확립하고 고구려를 방어하기 위한 관방시설을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전반에 집중적으로 축조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한강 이북지역에서는 중랑천 수계를 따라 양주 분지, 한강과 임진강의 합류지점에 관방시설을 구축하였다. 한강 이남 지역에서도 안양천 수계와 당성을 보호하기 위해 서해안 지역과 한강 하구의 주요 요충지에 축성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안성천 유역까지 관방시설을 구축하며 신주의 치소를 방어하는 관방체계를 확립하였다.

신라는 낭비성 전투 이후에 방어선을 임진강-한탄강 남안까지 북상시키며 고구려와 대치하였고, 이러한 관방체계는 고구려가 멸망하는 시점까지 유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당전쟁기에 당군의 남진을 저지하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는 점에서 군사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 이 글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4년 군사사연구총서 용역사업-7세기 후반 삼국의 격변과 신라의 삼국통일’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 한성대학교 크리에이티브 인문학부 조교수

주제어 : 신라, 신주, 한주, 관방시설, 관방체계

I. 머리말

군사사적 입장에서 관방시설의 현황과 특징은 거시적으로 해당 세력의 전략을 이해하고 미시적으로는 교통로를 중심으로 전술과 전투 양상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고대 한강유역은 백제-고구려-신라가 순차적으로 지배하였고, 각국의 충돌 과정에서 세부적인 경계의 변화도 잦았다. 이러한 이유에서 한강유역에는 많은 수의 관방시설이 축조되었고, 이전 세력이 축조한 관방시설을 새롭게 진출한 세력이 보수하여 재사용한 사례도 확인된다. 이러한 점에서 한강유역의 관방시설의 초축시기와 이후 수개축과 운영 양상은 해당 지역의 점유 세력의 지배방식 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물론 관방시설의 초축시기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사료에 등장하는 성을 고고학적인 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관방시설에 정확하게 비정할 수 있는 자료도 많지 않다. 고고학적으로 관방시설의 잔존 유구는 폐기된 시점의 모습이고, 내부에서 출토되는 유물도 최후 사용단계의 것이 대부분일 수밖에 없다. 또한 초축시기의 유물이 전혀 확인되지 않거나 정확한 편년이 어려운 잔편으로 수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자료 검토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강 유역의 관방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이 진행되었고,¹⁾ 이를 전후하여 개별 관방시설에 대한 조사도 꾸준히 진행되었다.

한편 개별적인 관방시설의 연구를 종합하여 시기별 관방체계의 구축 양상을 분석하는 것은 당시 각국의 대치양상과 경계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한강유역 신라의 관방시설의 축조 시기나 분포양상, 주변유적과의 관계를 검토한 연구가 있었다.²⁾ 그리고 한강유역의 관방시설을 종합하여 특징을 분석한 연구도 시도되었고,³⁾ 관방시설의 가시권이나 경관적 특징에 대한 연구도 제출되었다.⁴⁾ 이를 통하여 전체적인 관방시설의 양상을 검토할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

다만 기왕의 조사와 연구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지금까지 관방시설에 대한 조사는 전체 관방시설에서 극히 일부분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지속적인 조사를 통한 자료의 축적으로 축조 주체나 수개축 양상에 대한 해석이 바뀌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왕의 조사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를 합리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1) 백중오·김병희·김주홍, 2001 ; 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 2022.

2) 심광주, 2002 ; 황보경, 2020.

3) 안성현, 2018.

4) 이정범, 2022.

6세기 중반 이후에 신라가 새롭게 확보한 영역은 상당히 넓다. 신라의 영역화 과정에서 대백제전을 위한 중부 이남지역, 영동 지역 안정화를 위한 비열홀 지역도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본고에서는 공간적으로 6세기 중반에 설치한 신주의 범위로 한정하고자 한다. 신주의 범위에서도 7세기 중반에 우수주가 분리되면서 성립된 한산주(한주)가 중심이 된다.⁵⁾

본고에서는 구체적으로 신라가 한강유역으로 진출한 6세기 중반의 북진기에 가장 먼저 축조된 관방시설을 중심으로 2장에서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3장에서는 6세기 후반에서 나당전쟁이 발생한 7세기 후반까지 축조되거나 개보수된 관방시설을 확인해 볼 것이다. 마지막 4장에서는 한강유역을 포함한 한주 일대의 관방시설의 특징을 살펴보고, 통일기 이후에 관방시설의 행정치소적 성격이 강화되는 양상을 통하여 한주 관방시설의 의미를 검토해 보겠다.

II. 신라 북진기 주요 거점의 축성

신라가 553년에 백제를 한강유역에서 축출하고 신복속지에 설치한 신주는 광역의 주에 해당한다. 치소의 지명을 따서 명명되는 협의의 주는 사료에서 확인할 수 없으나, 후대 한주의 치소인 하남 이성산성과 춘궁동 일대에 치소가 위치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⁶⁾ 물론 후대의 치소와 일치한다는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최초로 설치된 신주의 치소를 이천으로 파악한 견해가 있다.⁷⁾ 또한 한강 진출을 위한 일종의 전진기지였던 국원에 치소가 설치되었다는 주장도 있다.⁸⁾ 그렇지만 이러한 주장도 명확한 근거는 부족하다.

신라의 북진기에는 활발한 군사활동이 전개되었다. 이 시기에 주는 치소이면서 정의 군사가 주둔하는 지역이므로 어떠한 형태의 관방시설이 존재하였을 것이다. 553년 신주 설치 직후 축성 관련 기록은 보이지 않지만, 하남 이성산성에서 이 시기의 유구와 유물이 확인된다. 이성산성이 처음 축조되었을 당시의 성벽은 대부분 최종적으로 수축된 3차성벽 내측에 존재한다. 1차성벽이 붕괴되자, 상부에 2차 성벽으로 수축하였는데, 최종적으로 3차 성벽은 다시 무너진 기존 성벽 외측에 쌓아서 1, 2차 성벽으로 덮고 있는 상태이다. 초축성벽의 축조 시기는 1차 집수시설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기저부 정지층을 공유하고 있다. 이성산성 A지구 1차 집수지에서는 6세기 중반 경의 고배 뚜껑과 완이 확인되었다.⁹⁾ 1차 성벽은

5) 『삼국사기』 신라본기에서 의하면 757년을 기준으로 한주는 1소경, 27군, 46현으로 구성되지만, 본고에서는 668년 고구려 멸망 이전을 기준으로 공간을 설정하고자 한다. 지리적으로는 북쪽으로 임진강-한탄강 이남, 남쪽으로 곡교천 이북, 동쪽으로 남한강 이서 지역에 해당한다.

6) 漢陽大學校博物館, 1991, 29쪽 ; 皇甫慶, 1999, 236~243쪽.

7) 姜鳳龍, 1994, 98~99쪽.

8) 임기환, 2002, 15쪽.

9) 漢陽大學校, 1988, 52~68쪽 ; 심광주, 2006, 81~82쪽 ; 沈秀貞, 2012, 82~95쪽.

편마암 계통의 장방형 석재를 모서리를 다듬지 않고 바른층쌓기 하였고, 기저부에는 지대석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기단보축도 부가되지 않았다(사진 1). 이러한 구조적인 특징은 6세기 중반 신라성의 축성법과 맥을 같이한다.¹⁰⁾

신라가 신주를 설치한 시점에 주의 범위는 지리적으로 남한강 상류에서 한강 하류 지역으로 연결되는 교통로를 관할하는 구역에 해당한다. 신주는 현재 충주, 진천, 음성, 죽산, 이천, 여주, 용인, 서울 강남(백제의 한성), 서울 강북(고구려의 남평양) 지역과 북한강 유역의 강원도 영서 지역에 해당하는 광범위한 지역이었다. 이러한 넓은 범위의 주요 지점에 신라가 동시에 축성을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축성에는 다수의 인원이 동원되어야 하지만 신라가 신복속지의 주민을 축성에 바로 동원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을 것이다. 신라는 5세기 중반 백두대간을 넘어서 보은 삼년산성과 이성산성을 수축할 때 일선(선산)에서 정부 3천명을 동원하였다.¹¹⁾ 또한 신라는 안라국을 복속한 뒤에는 함안 성산산성의 축조하는 과정에서 하주와 상주의 물자를 동원한 정황이 목간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북진기 초반에는 신라의 상주 등지에서 동원한 인력으로 거점이 되는 핵심지역을 중심으로 축성을 진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성산성도 신주의 치소성으로 6세기 중반에서 멀지 않은 시기에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사진 1] 이성산성 초축성벽



[사진 2] 당성 1차성 초축성벽

한편 신라가 564년에 북제에 사신을 파견한 사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¹²⁾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의 중간에 위치한 한강유역을 확보하는 모험을 감행한 목적은 수계의 확보를 통한

10) 심광주, 2019, 522~523쪽. 관방시설의 특징을 파악하는 구조적인 지표로 성벽과 부가시설, 성 내부시설 등이 있다. 축성과 관련된 기술적 변화가 반영된 면석의 가공수법(편마암계→화강암계, 면석 가공↑)과 축조방식(허튼층쌓기→바른층쌓기, 쇠기돌 사용↓)은 석축산성 편년에 유의미한 속성으로 볼 수 있다(심중훈, 2024, 75~95쪽).

11) 『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3 炤智麻立干 8年.

12)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眞興王 25年.

경제적 이익의 증대일 것이다. 이와 함께 대중국 교섭을 위한 독자적 항구의 확보도 중요한 동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신라의 북위 사신 파견 기사를 통해서 신라가 북진 후 서해안 지역과 이를 연결하는 교통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10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라가 한강 하류를 통해서 서해로 진입하려면 예성강 하구에서 고구려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신라는 한강 하류에서 백제와 경계로 추정되는 안성천 이남 지역의 중앙에 위치한 남양만에 주목하였다. 남양만은 이미 백제 한성기 후반에 무역항으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를 지나면 덕적도와 최단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후대의 일이지만 660년에 당의 소정방이 산동반도 성산에서 덕물도로 연결되는 황해중부횡단항로를 통해 백제에 상륙한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남양만에 위치한 화성 당성은 정상부와 동쪽 계곡을 감싸는 토성으로 된 통일신라시대 2차성과 정상부 북서사면을 감싸는 둘레 약 600m의 석축성인 1차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1차성 체성부는 이성산성의 초축성벽과 유사하게 장방형의 편마암을 바른층쌓기를 하였으나, 수평줄눈이 맞지 않고 썩기돌을 많이 사용하였다(사진 2). 1차성 서벽 외성벽의 외적층 등에서는 6세기 후반경의 토기와 기와가 출토되었다.¹³⁾ 기와는 토기를 소성하 듯 제작되어 두께가 얇은 특징을 보이는데, 왕경의 초기 기와의 같은 유형이다. 즉, 당성 1차성의 외벽 축조 방식은 이성산성 1차성벽과 축조 방식은 유사하지만, 출토 유물은 약간 후행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신라는 북진 이후에 소경이 설치된 국원에서 남한강을 따라 주치소로 연결되는 남북축의 교통로와 국원-당성, 주치소-당성을 연결하는 동서축의 교통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서 해당 교통로의 요충지에 관방시설을 정비하였다. 이러한 교통로의 교차점에 안성 죽주산성과 용인 할미산성이 위치하고 있다.



[사진 3] 안성 죽주산성 서벽 초축성벽

[사진 4] 용인 할미산성 동벽 초축성벽

13)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2018, 158-167쪽. 앞서 2차 조사 당시 상부 트랜치에서 삼각집선 문에 원점문이 시문된 뚜껑편이 확인되었다(漢陽大學校博物館, 2001, 175쪽).

안성 죽주산성은 중성, 내성, 외성의 복합성이다. 내성과 외성은 조선시대에 축조된 것이고, 고려-조선시대에 수축하였으나 하부에 신라의 초축성벽이 남은 곳은 중성이다. 중성의 신라 초축 성벽은 계단식으로 조성한 기저부에 지대석 없이 편마암 계통의 모서리를 치석하지 않은 장방형 면석을 바른층 쌓기로 올렸는데, 성벽은 이성산성과 당성의 초축성벽과 유사하다(사진 3).¹⁴⁾ 따라서 안성 죽주산성은 국원소경에서 남한강 수계를 따라 연결되는 남북축과 당성으로 연결되는 동서축이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하므로 북진기의 이른 시기에 축조되었을 것이다.¹⁵⁾

용인 할미산성은 둘레 661m의 사모봉형 석축산성이다. 할미산성의 서벽은 기저부를 계단식으로 정지하고, 편마암계통의 모서리를 치석하지 않고, 판석에 가까운 세장방형 면석을 ‘품(品)’ 자형으로 바른층쌓기하였다. 배수구를 포함하는 동벽 면석의 축조 방식은 서벽에 비해서 거친 편인데, 이성산성, 당성, 죽주산성의 초축성벽 면석과 유사한 면이 있으나 수평 줄눈이 맞추어졌다는 점에서 축조 시기가 다소 후행할 수 있다(사진 4). 할미산성에서도 성벽 기저부나 축조당시 문화층을 통해서 정확한 축조시기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다. 다만 성 내부에서 6세기 중후반의 토기류가 출토되었다는 점에서 6세기 후반 이전에 축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할미산성 내부에서 기와건물이 존재하지 않는 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¹⁶⁾ 성벽의 축조 방식과 기와가 출토되지 않았다는 점은 할미산성이 7세기 후반 이후에 사용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축조기법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고 단기간 사용된 할미산성은 한강유역 신라산성의 원초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¹⁷⁾

할미산성에서는 다각건물지도 3동이 확인되었다.¹⁸⁾ 다각건물지의 조성 목적에 대해서는 학계의 이견이 많다. 기와의 연구에서 8각은 팔괘와 관련하여 여덟 번째 부처인 미륵 신앙과 연결하고, 6각은 신성의 의미와 관련하여 시조신과 관련된 제의와 연결해서 보는 견해도 있다.¹⁹⁾

고구려에서는 환도산성에서 5세기대 다각형 건물지 2동이 확인되었다. 또한 사찰에서 다각형 건물지도 확인된바 있다. 신라의 경우에는 7세기대에 구황동 연지 유적에서 6각건물지가 조성되었고, 나정에서는 7세기대 8각건물지도 확인되었다.

하남 이성산성에서도 다각형 건물지가 조사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D지구에서 8각건물지 1동, 9각건물지 2동, 12각 건물지 1동이 조사되었는데, 모두 고구려 멸망 이후인 8세기 이후에 치소성 내에 제사시설로 조성된 것이다. 그리고 음성 땅이산성에서도 9세기대의 8각건물지가 확인되었다.

14) 한백문화재연구원, 2017, 51~55쪽.

15) 서영일, 2015a, 39~42쪽 ; 황보경, 2017, 186~18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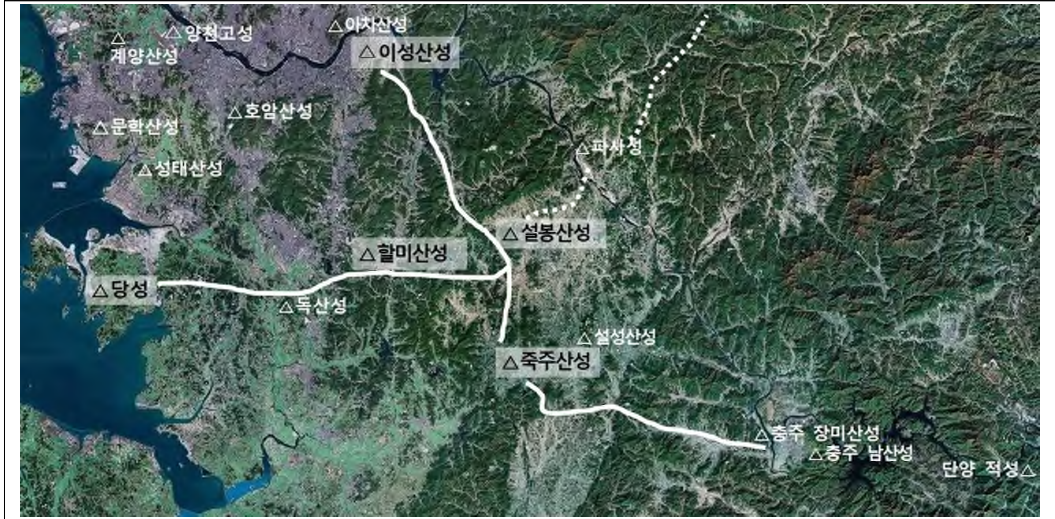
16) 경기도박물관, 2005 ; 한국문화유산연구원, 2014 ; 2017.

17) 白種伍, 2006, 28~29쪽 ; 현남주, 2013, 29쪽 ; 서영일, 2015b, 110~112쪽.

18) 한국문화유산연구원, 2017 ; 2018.

19) 이상국, 2015, 91~94쪽.

이와 같이 신라에서 주치소보다 이른 시기에 조성된 다각건물지의 존재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할미산성은 바로 남양만의 당성에 이르는 교통로를 방어하기 위해 축성된 것이며, 주치소의 역할에 버금가는 제장의 역할도 함께 수행한 곳임을 알 수 있다.²⁰⁾



[그림 1] 6세기 중후반 신라 관방시설 구축 현황

요컨대 신라는 국원-죽산-이천, 용인을 통하여 화성-남양으로 이어지는 교통로에 안성 죽주산성과 용인 할미산성을 축성하였던 것이며, 대중국 항로와 관련된 교통로를 중심으로 방어선을 우선적으로 확보한 것이다. 아울러 북한강 유역을 따라 춘천으로 연결되는 교통로와도 방어선이 연결된다(그림 1). 여기서 신라가 북방 지역으로 영토를 확장한 초기의 목표가 한강유역 장악과 대중국 교통로의 안정적인 확보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6세기 중반경에는 고구려와 접경인 한강 이북과 임진강 일대에 대하여 동시에 관방시설을 구축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Ⅲ. 7세기를 전후한 동시다발적 관방시설의 축조

6세기 중반 신라가 한강유역으로 진출하자 고구려는 서서히 반격을 시작하였다. 신라는 한강 이북을 둘러싸고 고구려와 치열한 전투를 벌이게 되었다. 사료를 통해서 가장 주목되는

20) 568년에 북한산주를 폐지하고 남천주를 설치한다. 남천주의 치소는 이천 설봉산성으로 판단되는데, 이곳에서 당성으로 연결되는 교통로를 감안한다면 할미산성의 입지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곳은 신라의 북한산성인 서울 아차산성이다.²¹⁾ 신주의 치소가 한강 이북에 위치하였을 때 설치된 곳이 북한산주로 추정되는데, 아직 6세기 중반에 북한산주의 치소로 아차산성이 초축되었는지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한 상황이다.

아차산성에서는 발굴조사를 통하여 6세기 중반의 축성기법을 보이지만 면석이 정방형에 가깝고 바른층쌓기된 외벽이 남문 수구지 일대에서 확인되었다(사진 5). 그리고 서성벽 기저부에서 6세기 후반경으로 편년되는 원점문에 삼각집선문이 시문된 토기편등이 확인되었다.²²⁾ 따라서 늦어도 이 시점에는 관방시설이 구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²³⁾ 그렇다면 이러한 아차산성의 조사 성과는 고구려 온달의 공격을 방어한 사건이나 7세기 초반에 고구려의 북한산성 공격을 진평왕까지 출정하여 막아낸 것과 긴밀하게 연결된다.²⁴⁾

한편 아차산성과 함께 6세기 후반부터 신라는 한강유역 전 지역에 관방시설을 축조하였다. 이러한 관방시설의 축조 사례가 증가하는 것은 대고구려 방어체계 구축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또한 신라가 신주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면서 지역민을 동원하여 축성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 상황의 변화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신라는 방어선을 한강에서 임진강 남안으로 북상하고자 하였다. 한강에서 임진강 방향으로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교통로는 중랑천과 양주분지를 통해서 연천방향으로 통과하는 남북축의 도로이다. 또한 양주분지의 남쪽으로 감악산의 동쪽과 서쪽을 통해서 임진강으로 연결되는 동서축의 교통로는 양주분지의 입구에서 교차한다. 이러한 교통의 결절점에 해당하는 곳에 양주 대모산성이 위치한다. 대모산성에 대한 조사에서 성벽의 양상은 명확하지 않지만 백제가 남긴 유구와 유물도 확인되었다.²⁵⁾ 고구려가 남진했을 때의 대모산성의 운영 여부도 명확하지 않지만, 신라의 초축성벽은 아차산성 초축성벽과 유사하여 6세기 후반 이후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²⁶⁾

이에 앞서 고구려는 양주 분지를 둘러싸고 아차산 일대와 연결되는 대규모 보루군을 조성하고, 임진강으로 통하는 교통로를 방어하였다. 신라는 양주 천보산 보루군과 불곡산 보루군과 인접한 지점에 대모산성을 축성하여 신라의 한강 일대 최북단 거점으로 사용한 것이다(사진 6). 이와 같이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전반에 신라는 한강이북 지역의 경우에는 양주분지 일대까지 관방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21) 윤성호, 2019, 306~308쪽.

22) 한강문화재연구원, 2020, 639~643쪽.

23) 박가영, 2023, 120~122쪽.

24)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眞平王 25年.

25) 문화재연구소·한림대학교박물관, 1990 ; 한림대학교박물관, 2002 ; 기호문화재연구원, 2021; 2022; 2023,

26) 심광주, 2014, 92~95쪽 ; 심재연, 2014, 222쪽 ; 김용, 2024, 259~267쪽.



[사진 5] 서울 아차산성 남벽

[사진 6] 양주 대모산성 동벽

한편 한강 이남 지역에서 안양천 일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안양천과 한강이 만나는 교통로를 통제하는 지점에 위치한 서울 호암산성이 주목된다. 호암산성은 동벽 일부 구간에 대한 조사에 그쳤지만 남서벽의 경우에는 보축기단과 세장방형의 면석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호암산성도 6세기 후반에 초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²⁷⁾ 특히 호암산성 아래 안양천의 평탄지에서 조사된 대규모 취락 유적과 초축시기가 연동될 것이다.

서울 독산동 유적은 동-서, 남-북으로 연결되는 도로유구 뿐만 아니라 수혈건물지 23기, 굴립주 건물지 99기, 초석 건물지 3기 등의 유구가 확인되었다.²⁸⁾ 인접한 시흥동 유적에서도 수혈주거지 12기, 적심건물지 1기 등이 조사되었다. 독산동 유적과 시흥동 유적에서는 6세기 중반에서 7세기 전반으로 편년되는 고배와 부가구연대부장경호가 수습되었다.²⁹⁾

독산동 유적은 6세기 후반에서 조성되기 시작하여 장기간 사용된 취락이라기 보다는 단기간 사용되고 폐기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다수의 굴립주 건물지가 구획을 이루며 일부 중복되어 조성되었는데, 이러한 유구는 창고 시설이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안양천 동안에 인접하여 위치한 유적지에 대규모 창고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호암산성 방향으로 도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군사적 성격이 강한 취락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산성인 호암산성과 평지의 군사적 성격이 강한 취락시설은 군사적인 목적으로 함께 조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하여 한강 이북지역에서 신라 방어선의 북상과 함께 서해안에서 안양천으로 연결되는 교통로와 안양천을 통하여 수원까지 연결되는 교통로의 방어를 위한 관방체계가 정비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³⁰⁾

이와 함께 서해안 방면에도 다수의 관방 시설들이 축조되었다. 한강 이남에서 발굴조사를

27) 한우물 일대에 대한 발굴조사에서 통일신라시대의 산성으로 추정되었으나(서울大學校博物館, 1990), 지표조사 과정에서 보다 이른 시기에 조성된 초축 성격도 확인되었다(한강문화재연구원, 2014, 82~86쪽 ; 손설빈·임태용, 2024, 29~32쪽).

28) 겨레문화재연구원, 2016, 591~593쪽.

29) 頭流文化研究院, 2023.

30) 윤성호, 2024a, 142~145쪽.

통해 성격이 확인된 관방시설은 김포 문수산성, 수안산성, 인천 계양산성, 문학산성, 안산 성태산성으로 당성 이북 지역에서 고구려군의 상륙을 방어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당성 이남 지역에서는 아산만을 통해 상륙하는 백제군에 대비하고자 평택 자미산성을 축조하였다.

다음으로 양주분지 북쪽의 관방시설 정비 현황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되는 사건이 낭비성 전투이다. 신라는 629년에 고구려의 낭비성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한산주 북쪽에서 서울-양주-포천을 거쳐 철원에서 안협을 통하여 평양으로 연결되는 교통로와 추가령구조곡을 따라 안변까지 연결되는 교통로(삼방로)가 교차한다. 이러한 점에서 포천 일대는 신라와 고구려에게 모두 중요한 요충지였다.

포천의 옛 지명이 낭성군(臂城郡)(마홀, 馬忽)인데, 포천 반월성 장대지에서 ‘마홀수해구초(馬忽受蟹口草)’ 명 기와가 출토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포천이 고구려의 마홀이고, 비성과 낭비성을 연결하여 포천 반월성을 낭비성으로 비정하는 것이 통설이다.³¹⁾

포천 반월성에 대한 발굴조사에서 백제, 고구려, 신라 유물들이 모두 출토되었다.³²⁾ 고구려 유물은 서치성과 장대지 일대에서 확인되었는데, 유물의 분포상과 입지를 통하여 장대지 주변에 보루와 같은 소규모 관방시설이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혹은 고구려가 최종적으로 조성된 반월성의 일부 구역을 7세기 초반까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 견해도 있다.³³⁾

포천 반월성을 동벽 조사구간에서 아차산성의 초축구간 면석에 비해서 모서리가 치석된 화강암 재질의 정방형 면석이 확인된다. 이러한 면석을 통하여 반월성의 축조 시기가 7세기 전반에서 중반에 이르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사진 7).



[사진 7] 포천 반월성 동벽



[사진 8] 포천 성동리산성 남벽

31) 徐榮一, 1999, 243~249쪽 ; 박중서, 2010, 132~143쪽 ; 윤성호, 2019, 179~181쪽.

32)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004 ; 한백문화재연구원, 2009 ; 방유리, 2009, 35~45쪽.

33)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004, 533~534쪽 ; 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96~97쪽.

신라가 포천 지역으로 북상한 시기를 사료를 통해서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주변 유적 배치를 통해서 이를 추론해 볼 필요가 있다. 반월성에서 철원방면으로 넘어가는 교통의 요충지에 포천 성동리 산성이 위치한다. 성동리 산성에서는 지표조사를 통하여 다량의 신라 유물이 확인되었다.³⁴⁾ 이중에서도 수습된 단각고배를 기준으로 성동리 산성을 6세기 후반에 신라가 초축한 것으로 파악한 견해가 있다.³⁵⁾ 실제로 남벽의 잔존 구간은 편마암 계통의 모서리를 치석하지 않은 면석으로 축조되어 있는데, 6세기 후반에 조성된 관방시설의 축조 기법과 유사하다(사진 8).

그리고 성동리 산성의 남서쪽 하단에 위치한 성동리 마을 유적에서는 4~5세기 백제 주거지 4기가 확인되었는데, 2호 주거지 북동쪽의 주혈에서는 고구려 토기편도 수습되었다. 그리고 신라 주거지도 2기가 조사되었는데, 출토된 유물이 6세기 후반을 중심연대로 한다는 점에서 신라가 북진을 진행하는 과정에 한시적으로 설치된 마을로 볼 수 있다.³⁶⁾

물론 단편적인 자료를 통해서 추론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신라가 북진기에 포천까지 북상하였다가, 568년 남천주로 옮겨갔던 시기에 상실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혹은 603년 북한산주 재설치를 전후하여 다시 확보하였다가 우명산성(춘천 봉의산성)을 상실한 608년 이후에 포천 지역을 상실하였을 수도 있다. 그 후에 고구려가 반월성에 보루를 설치하여 통제하였으나, 629년에 대대적인 군사를 동원하여 탈환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추론이 가능하다면, 신라는 포천 지역을 일시적으로 점령하였지만, 안정적으로 지배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³⁷⁾ 임진강-한탄강 일대의 신라의 서북 변경은 신라와 고구려가 모두 안정적으로 행정적인 지배를 하지 못한 일종의 군사적 완충지대였을 가능성도 있다.³⁸⁾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신라의 낭비성의 확보를 통하여 종결되었다. 따라서 포천 반월성의 629년 이후에 신라가 본격적으로 운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신라는 포천 반월성의 북쪽에 위치한 영평천 유역의 포천 성동리 산성, 연천 대전리 산성과 함께,³⁹⁾ 철원 할미성, 동주산성, 성산성까지 운용하게 되면서 한탄강 유역까지 관방체계가 확장되었다.⁴⁰⁾

이어서 임진강 유역의 관방시설도 살펴보자. 임진강과 한강이 합류하는 요충지에 파주 오두산성이 위치한다. 오두산성은 훼손이 심하고 조사가 미진하여 초축시기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신라는 한강유역을 확보한 직후에 임진강 하구 지역에 대한 영역화를 시도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오두산성 인근의 파주 성동리 고분군을 통해서 6세기 중반 경에 오두

34) 수습된 유물을 백제나 고구려 토기편으로 설명한 보고서가 있지만(陸軍士官學校 陸軍博物館, 1997, 34-36쪽), 유물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35) 白種伍, 2004, 296-297쪽.

36) 경기도박물관, 1999, 163-166쪽.

37) 방유리, 2009, 31쪽.

38) 권순진, 2007, 33-34쪽.

39) 연천 대전리 산성은 양주 대모산성의 초축보다 늦은 7세기 전반 이후에 축조하였다는 견해가 있다(심광주, 2013, 56-63쪽).

40) 권순진, 2013, 312-319쪽.

산성이 축조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⁴¹⁾ 다만 오두산성 내성의 동벽의 부분적인 조사 구간에 세 장방형의 편마암계통의 면석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면석은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전반의 특징을 보인다(사진 9).⁴²⁾ 오두산성과 함께 한강 북안에서 한강을 통제하는 고양 행주산성과 한강 남안의 서울 양천고성의 초축성벽도 비슷한 시기에 축조된 것으로 판단된다.⁴³⁾



[사진 9] 파주 오두산성 동벽



[사진 10] 파주 칠중성 서벽

임진강 남안에서 칠중성의 축조 시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신라의 칠중성 운영은 임진강 남안 전체를 신라가 안정적으로 확보한 상태에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칠중성은 발굴조사가 되지 않아서 초축시기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잔존구간의 서벽 면석과 보축성벽은 7세기 전반 이후의 특징을 보인다(사진 10).⁴⁴⁾ 그렇다면 칠중성은 낭비성의 확보 이후에 신라가 석축성으로 쌓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7세기 전반에 신라가 다시 북진을 시도하였고, 임진강-한탄강을 경계로 630년대 이후부터 고구려와 대치하며 최전방의 경계가 형성되었다.

고구려 멸망 이전에 임진강 북쪽의 파주 덕진산성, 연천 호로고루, 당포성, 은대리성, 무등리 1보루, 무등리 2보루 등의 고구려 관방시설에서 신라가 점유한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⁴⁵⁾ 지표조사에 그쳤으나 봉서산성, 이잔미성, 아미성, 수철성, 군자산성, 옥녀봉산성에서는 신라 토기와 와편이 수습되었다. 조사의 한계로 초축시기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630

41) 윤성호, 2022, 54~57쪽.

42) 한백문화재단연구원, 2008 ; 가디언문화유산연구원, 2023.

43) 한얼문화재단연구원, 2016 ; 2019 ; 윤성호, 2023, 44~48쪽. 행주산성 초축성벽의 축성 시기를 양천고성 보다 조금 후행하는 7세기 전반~중반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한양문화재단연구원, 2021, 28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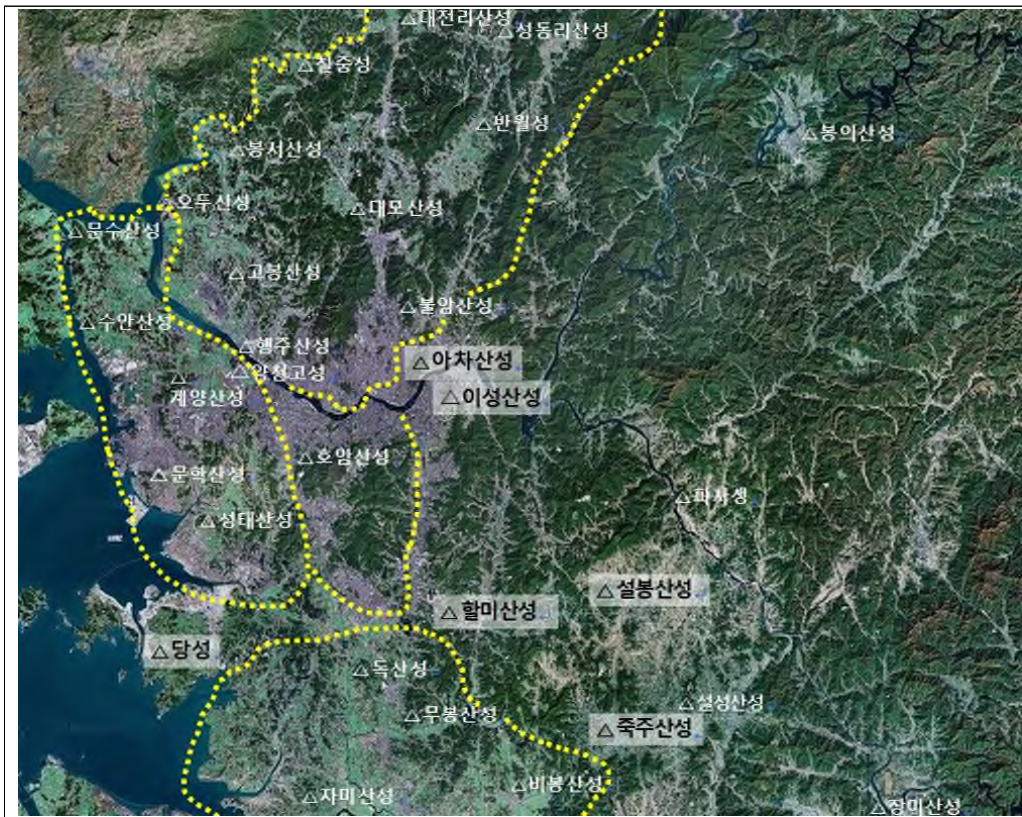
44)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001 ; 경강문화재단연구원, 2022.

45) 윤성호, 2019, 137~140쪽.

년대 이후에 신라가 초축하거나 고구려성을 재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임진강-한탄강을 두고 신라와 고구려가 상호 견제하는 양상이 되었다. 고구려는 임진강-한탄강 북안에서 거점성과 위성을 조합관계인 선상방어체계를 구성하고, 신라는 임진강-한탄강 남안에서 주성과 보조성을 조합한 삼각형방어체계로 대처하였다.⁴⁶⁾ 이러한 신라의 관방체계는 타지역에서도 유사하게 구성되었다.

신라는 한강유역으로 진출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축성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축성을 통해서 신라는 방어선을 구축하여 고구려의 남진과 백제의 북진을 막아내었고, 최종적으로 한강 유역을 지켜낼 수 있었다. 이러한 신라의 노력을 통한 영역지배의 강화는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밑거름이 되었다.



[그림 2] 7세기 중반경 한주의 관방시설

요컨대 신라가 한강유역에서 본격적으로 관방시설을 축조한 시기는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전반이다. 이 시기에 국원-주치소, 국원-당성, 주치소-당성을 연결하는 교통로를 중심으로 축

46) 白種伍, 2007, 294쪽.

조된 관방체계가 확장된 것이다.

한강 이북에서는 아차산성과 대모산성을 중심으로 양주분지 일대(중랑천 수계)까지 관방체계가 형성되었고, 한강 이남에서는 안양천 수계와 서해안 지역에 관방체계가 구축되었다. 629년 낭비성 전투 이후에는 임진강-한탄강 남안(영평천 일대)에서도 관방체계가 갖추어졌다. 이러한 관방체계는 고구려 멸망시까지 대고구려 방어선으로 기능하였다(그림 2).⁴⁷⁾

Ⅳ. 신라 한주 관방시설의 특징과 의미

행정적인 치소의 성격과 함께 군사적인 성격이 강한 관방시설의 축조는 국가 권력의 침투가 전제되는 사업이다.⁴⁸⁾ 활발한 축성은 그 지역에 대한 국가의 직접지배가 관철되고 있음을 의미한다.⁴⁹⁾ 신라가 한강유역으로 진출하여 축성을 진행한 내용을 살펴보면, 신라가 한강유역으로 진출하기 이전에 축조한 관방시설과 차이가 있다.

고구려는 5세기대에 백제와 충돌이 벌어진 예성강 이서 지역에 대형 산성을 쌓았지만, 임진강과 한강유역에는 소규모 보루들을 교통로를 따라 설치하였다.⁵⁰⁾ 신라는 5세기 후반에 소백산맥을 넘어서 보은 삼년산성, 영월 정양산성과 같이 장기간 수성전이 가능한 대형 산성을 쌓았는데, 고구려나 백제에 비해서 방어 위주의 전쟁을 벌였기 때문이다.⁵¹⁾ 이러한 신라의 방어 전략은 한강유역의 관방시설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었을 것이다. 신라는 한강유역에서 이미 조성되었던 백제나 고구려의 관방시설을 그대로 사용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신라가 운영한 관방시설 중에서 일부 고구려 유물이 수습된 곳도 있으나 명확하게 성벽이나 유구가 확인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성기 백제의 유물이 출토되는 양주 대모산성, 이천 설봉산성, 설성산성 등에서 고구려가 재사용한 명확한 흔적도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백제가 운영한 관방시설도 신라의 한강유역으로 진출 이전에 폐기된 상태였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신라는 새로운 장소에 관방시설을 신축하거나 이전에 존재한 관방시설을 대대적으로 수축하였다.

신라의 관방시설은 교통로를 따라서 상호 가시권이 확보되는 일정한 간격으로 축조되었다.⁵²⁾ 한강유역으로 진출한 북진기에 신주의 치소와 국원에서 당성으로 연결되는 교통로의

47) 崔鍾澤, 1999 ; 白種伍, 2007 ; 윤성호, 2022, 64~67쪽.

48) 兪元載, 1984, 2쪽.

49) 축성의 의미와 관련하여 진흥왕 6년(545)에 거칠부가 편찬한 국사에 5세기 후반~6세기 초에 이루어진 축성 관련 내용이 기술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추론도 있다(井上秀雄, 金東旭·金森襄作 譯, 1981, 164~165쪽).

50) 徐日範, 1999, 117~167쪽 ; 양시은, 2016, 208~209쪽, 224~225쪽.

51) 金瑛河, 2002, 100~101쪽.

52) 서울-경기 및 인천 지역에 있는 관방시설은 336개소, 강원도 일대에는 90개소의 성곽이 확인되었다. 이 중에서 신라가 6세기 중반 이후부터 한주를 운영한 시기에 운영된 산성이 49개소, 북한강 일대의 우수주의 경우 8개소로가 파악된다.

중심지에 축성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남천주가 설치되어 한강 이북 지역을 고구려와의 공방이 벌어진 후 6세기 후반부터 7세기 전반까지 양주 분지 북쪽과 영평천 이북 지역을 제외하면 전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축성이 진행되었다. 다만 단기간에 집중적인 축성이 진행되면서 관방시설의 둘레나 성벽의 높이는 축소되는 특징도 확인된다.

한편 이러한 축성이 가능했던 것은 신라 왕경의 대대적인 관방시설 정비와 연결된다. 진평왕 13년(591)에는 남산성을 쌓았고, 진평왕 14년(593)에는 명활성과 서형산성을 수축하였다.⁵³⁾ 남산성 축조는 《남산신성비》를 통해서도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남산의 ‘신성(新城)’이라는 표기는 단순히 ‘새로운 성’ 이상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진평왕 5년(583) 선부의 설치를 시작으로 진평왕 13년(591) 영객부의 설치까지 대대적인 제도 개혁이 이루어졌다. 개혁이 마무리되는 이해에 남산신성이 축조되는 것은 새로운 지배체제의 면모를 과시하는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⁵⁴⁾

특히 《남산신성비》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3년 이내에 무너지면 그 책임을 묻는다(作後三年崩破者罪教事)”는 서약을 기입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성벽이 자주 무너졌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성벽 붕괴를 막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 《남산신성비》의 축성 관련 장인의 명칭

구분	면석	문지	뒷채움석	
1비	면착상	문착상	소석착상	
2비	면석착인	□석착인	소석착인	
3비	면석착상인	□석착인	소석착상인	
4비	□석착상인		소석착상인	
9비	면착	□착인	소석착인	

《남산신성비》에서는 축성과 관련된 장인의 명칭도 확인된다. [1비]에서는 ‘면착상(面捉上)’, ‘문착상(門捉上)’, ‘소석착상(小石捉上)’, [2비]에서는 ‘면석착인(面石捉人)’, ‘□석착인(□石捉人)’, ‘소석착인(小石捉人)’, [3비]에서는 ‘면석착상인(面石捉上人)’, ‘□석착인(□石捉人)’, ‘소석착상인(小石捉上人)’, [4비]에서는 ‘□석착상인(□石捉上人)’, ‘소석착상인(小石捉上人)’, [9비]에서는 ‘면착(面捉)’, ‘□착인(□捉人)’, ‘소석착인(小石捉人)’이 확인된다. 즉, 종합해보면 ‘○석착상인’은 석공을 지칭하는데, 석공도 세분화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각각의 장인은 면석을 다루는 장인(面石捉上人), 문지를 만드는 장인

53)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眞平王 13年·15年.

54) 朱甫暉, 1994, 39쪽; 『三國史記』에는 ‘築南山城’으로 기록되어 있으나(『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眞平王 13年), 《남산신성비》에 ‘南山新城’으로 나오며, 《명활산성비》에는 ‘作城’으로 표현되어 있다.

(門石捉上人), 채석 또는 뒷채움석을 담당한 장인(小石捉上人)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표 1).⁵⁵⁾

그리고 [2비]에서는 소석착인의 관등은 피일(외위 10위)이다. [3비]의 소석착인이 경위인 소오(외위 16위)에 해당하고, [3비]의 면석착석인의 관등은 대오(외위 15위)로 한 등급이 높다. 이러한 점에서 외벽의 가장 중요한 구조인 면석을 치석하는 장인의 위계가 높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⁵⁶⁾

또한 비문에 축성을 담당한 인물의 출신지와 관련된 지명도 확인된다. 《남산신성비》 [1비]의 아랑(阿郎), 아랑촌(阿郎村)은 신라가 복속한 안라가야(함안) 지역, 노함촌(奴舍村)은 의령, 칠토(柒吐)는 함안 칠원에 해당한다. [2비]의 아대혜촌(阿大兮村)과 구리성(仇利城)은 옥천, 답대지촌(答大支村)은 상주로 비정된다.⁵⁷⁾ 종합해 보면 [1비]는 하주, [2비]는 상주 지역에서 동원된 인력이 축성을 담당한 것을 기록한 것이다. 당시의 한강유역의 남천주에서 인력을 동원하였는지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지만, 역역에 동원된 인원의 이동에 수반하여 축성기술도 전국적으로 공유되었을 것이다.⁵⁸⁾

앞서 언급한 듯이 신라의 북진 직후인 6세기 중반에 신복속지의 재지민을 신속하게 재편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주요 지점에만 관방시설이 축조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6세기 후반에 고구려의 남진을 막아내고, 관방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신복속지의 인력이 동원되고, 왕경의 축성기술도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한주에는 축성을 위한 전문화된 조직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삼국사기』 무관조에는 ‘대장척당(大匠尺幢)’이 확인된다.⁵⁹⁾ ‘대장척’의 명칭으로 볼 때 축성과 관련된 일종의 공병부대일 것으로 추정된다.⁶⁰⁾ 특히 한주에 대장척당주 1명, 한산정에 대장척감 1명이 배치된 점이 주목된다. 무관조가 정리된 기준 시기를 일반적으로 신라 하대로 파악한다. 그렇지만 대당과 정제의 군관직 일부는 신라 하대 이전부터 설치되어 그대로 유지된 것이 파악한 견해도 있다.⁶¹⁾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전반에 한강유역의 축성이 집중되는 점도

55) 해당 내용을 기술자로 파악하지 않고, 촌락의 행정을 담당한 재지세력자로 파악한 견해도 있지만(朱甫墩, 1988, 47~49쪽), 기술자 집단으로 파악하는 것이 적절하다(李銖勳, 1994, 8~23쪽).

56) 《남산신성비》 9비에서는 ‘면착’, ‘□착인’, ‘소석착인’이 확인되는데, 면착의 관등이 아척이고 나머지는 판독이 불가능하다. 여기서 면착이 다른 비의 면석착상인과 같은 것으로 보이지만 관등이 외위 11위인 아척으로 되어 있다.

57) 李鍾旭, 1974, 11쪽 ; 李明植, 1992, 107~111쪽.

58) 앞서 살펴본 화성 당성의 1차성벽은 편마암 계통의 활석으로 축조되었는데, 대형 활석의 비율이 주변 관방시설에 비해 높다. 이러한 형태는 경주 명활성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동일한 축조집단이 축성에 참여하였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안성현, 2021, 80쪽).

59) 『三國史記』 卷40, 職官 下 武官.

60) 심광주, 2002, 228쪽.

61) 대당과 정제의 군관직 중 일부는 신라 하대 이전부터 설치되어 유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범흥왕대 설치된 감사지와 군사당주, 자비마립간대에 설치된 장군을 비롯하여, 감사지, 군사당주와 인원규정이 같고 무관조 기록의 연결성 등으로 보아서 군사감, 대장척당주와 대장척감도 그 이전에 성립되었던 군관직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가 참고된다(李文基, 1997, 180~181쪽).

이 시기 한주에 별도의 축성 담당 군사 조직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높여준다. 따라서 한주에서 신라의 축성과 관방체계 구축은 매우 치밀하게 진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축성을 위해 동원된 인력의 파악과 동원을 통해서 한주에 대한 지배가 정치해지는 계기도 되었을 것이다.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구축된 관방체계는 신라가 고구려-백제와 대응하면서 한강 유역을 사수하고 최종적으로 양국을 멸망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신라는 고구려를 멸망시킨 뒤 나당전쟁의 위기를 맞이하였다. 신라는 임진강 이북 지역과 대동강 이남지역에서 당군과 충돌하였다. 나당전쟁 초반의 주요 전장은 고구려 멸망 이전에 신라가 진출하지 못했던 고구려의 고지였다.

고구려는 임진강 이북에 일정한 간격으로 보루를 설치하여 도하가 용이한 여울을 통제하였다. 신라는 임진강 이남에 위치한 주요 교통로를 통제하는 구룡을 중심으로 촘촘하게 산성을 배치하는 관방체계를 구축하였다. 신라는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에 대동강 이남의 영유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했다. 전쟁으로 고구려의 지배층과 주민이 사민된 상황에서 해당 지역의 인력을 이용하여 신라의 관방체계에 맞게 축성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즉, 신라가 한강유역의 광범위한 지역을 한 번에 확보한 직후인 6세기 중반의 상황보다 고구려고지의 상황은 더욱 열악하였을 것이다.

고구려는 주방어방향에 해당하는 평양의 북쪽과 요동 지역에 관방시설을 집중적으로 배치하였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약한 세력인 신라와 접한 남쪽 변경의 관방체계는 다르게 구성되었다. 예성강 이북지역에서 대동강 이남까지는 주요 거점에 둘레 2km이상의 중대형산성을 축조하였지만, 임진강 북안을 중심으로 강안평지성과 소규모 보루를 배치한 관방체계를 구축하였다.⁶²⁾ 기왕에 무력에서 강세인 고구려와 약세인 신라는 서로 관방체계가 상이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신라가 고구려의 관방시설을 그대로 사용하기 힘들었다. 결국 신라는 기존 전쟁방식과 다르게 청야입보의 수성전이 아니라 평지에서 당군과 충돌하였다. 신라는 석문전투에서 당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이후 전쟁의 주도권을 상실하면서 방어적 입장으로 바뀌게 되었다. 신라는 당과 전쟁을 치루는 것에 대한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면서 방어적 입장에서 새로운 전술의 수립이 시급해졌다.

신라는 672년에 주장성(남한산성)을 축조하여 한강 이남의 방어선을 정비하였다.⁶³⁾ 그리고 673년에는 서형산성을 쌓는 등 왕경 외곽의 방어선도 정비하고,⁶⁴⁾ 국원성을 포함하여 왕경과 연결되는 주요 교통의 요충지에도 대대적인 축성을 진행하였다.⁶⁵⁾ 신라가 고구려와 대치중에 구축한 임진강-한탄강 이남의 관방체계는 전국적 범위로 확대되었다. 결국 당군은 신라가 구

62) 양시은, 2016, 207~209쪽 ; 정원철, 2017, 80~83쪽.

63) 中原文化財研究所, 2007 ; 권창혁, 2023, 297~298쪽.

64) 『三國史記』 卷7, 新羅本紀7 文武王 12·13年.

65) 신라는 기존의 성과 신축된 성을 연계하여 방어선을 설정한 것인데, 제1방어선에서는 칠중성이 거점성으로 활용되었다(이상훈, 2016, 83~88쪽).

축한 임진강-한탄강의 방어선을 거의 돌파하지 못하고 회군하였다. 여기서 6~7세기에 신라가 구축한 한강유역 관방체계 유효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⁶⁶⁾

나당전쟁 이후에는 이러한 관방시설은 군사적인 성격보다 행정치소의 성격이 강화되었다. 주치소에 해당하는 서울 아차산성, 이천 설봉산성, 하남 이성산성을 비롯하여 주요 요충지에 위치한 성곽은 통일신라 이후에 군현에 해당하는 치소성(군현성)이 되었다. 이러한 성곽에서는 다량의 명문기와를 비롯하여 문서행정에 사용된 벼루 등이 출토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한주에 밀집된 관방시설은 전쟁 이후에 치소로 전환되면서, 통일이후 편제된 9주에서 군현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좁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수의 행정 단위가 배치되는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⁶⁷⁾

V. 맺음말

지금까지 신라의 북진기 이후인 6세기 중반부터 통일기의 한주 일대의 신라 관방시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신라는 6세기 중반에는 신북속지에 대한 지배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주치소와 대중국 해상 교통로의 출발점이 연결되는 교통로를 중심으로 관방시설을 구축하였다. 이때 하남 이성산성, 화성 당성, 안성 죽주산성, 용인 할미산성이 가장 먼저 정비되었다.

6세기 후반에는 고구려가 다시 신라에 대해 공격하자 한강 이북 지역의 상황은 불안해졌다. 신라는 7세기 초 북한산성 전투를 전후하여 한강 이북지역부터 탈환하려는 고구려의 시도를 무산시켰다. 이러한 과정에서 신라는 한주 일대의 대민지배를 확립하고 대고구려 방어를 위한 관방체계를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전반까지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우선 한강 이북 지역에서는 아차산성을 중심으로 중랑천 수계에서 양주 분지를 연결하는 교통로를 중심으로 대모산성까지 관방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한강과 임진강의 합류지점과 함께 한강 이남 지역에서도 안양천 수계를 중심으로 호암산성을 대표하는 관방체계를 구축하였다. 당성을 보호하기 위해 서해안 지역과 한강 하구의 주요 요충지에도 축성이 진행되었으며, 한주 남부에 해당하는 안성천 유역으로도 관방체계가 확장되었다.

신라는 629년에 고구려 낭비성을 공격한 이후에 방어선을 임진강-한탄강 남안까지 북상하였다. 임진강 하구의 오두산성부터 임진강 중간의 요충지인 칠중성을 중심으로 주요 지점에 축성을 통하여 임진강-한탄강 북안의 고구려 관방체계와 마주하며 상호 경계를 이루었다. 이러한 관방체계는 효과적으로 작동하였고 고구려가 멸망하는 시점까지 유지되었다.

이와 같이 신라는 한주 일대에서 단계를 거쳐 관방체계를 완성해 나갔다. 이러한 관방체계

66) 윤성호, 2024b, 260~263쪽.

67) 尹星鎬, 2018, 269~277쪽.

가 다시 주목받는 시기는 나당전쟁기이다. 나당전쟁 초반에 신라는 임진강 이북 지역에서 대동강 이남 지역으로 진출하여 당군과 대치하였다. 그런데 이곳은 신라가 신속하게 관방체계를 구축할 수 없었다. 고구려의 관방체계는 신라의 상황과 달랐기 때문에 북쪽에서 내려오는 당군을 막아내기에는 적절하지 못했다. 신라는 결국 석문 전투에서 평지를 중심으로 전투를 벌이다가 참패하고, 수세적 입장으로 전환하였다. 신라는 기왕에 고구려와 대치하였던 임진강-한탄강선으로 방어선을 후퇴하고, 관방시설을 보강하였다. 또한 주장성을 대표로 임진강-한탄강에서 왕경에 이르는 주요 교통로의 관방시설을 보강하였다. 이렇게 신라는 관방체계를 재정비한 것은 매우 효과적이었다. 당군은 결국 몇 차례의 공세를 시도하였으나 신라의 방어선을 돌파하지 못했다. 이러한 점에서 한주 일대의 관방체계의 구축이 지니는 군사사적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투고일: 2024.11.28, 심사개시일: 2024.11.29, 게재확정일: 2024.12.09.

【참고문헌】

- 가디언문화유산연구원, 2023, 『파주 오두산성 2차 학술발굴조사 약식보고서』.
- 姜鳳龍, 1994, 『新羅 地方統治體制 研究』, 서울大學校 國史學科 博士學位論文.
- 겨레문화재연구원, 2016, 『서울 독산동 유적』.
- 경강문화재연구원, 2022, 『坡州 七重城 -정밀지표조사보고서-』.
- 경기도박물관, 1999, 『抱川 城洞里 마을遺蹟』.
- 경기도박물관, 2005, 『龍仁 할미산성 -試掘調査報告書-』.
- 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남한의 고구려 유적 현황조사 및 보존정비 기본계획(안)』.
- 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 2022, 『중원문화권 관방유적 예비현황조사 결과보고서』.
- 권순진, 2007, 『경기지역 新羅 ‘北進期城郭’에 관한 일고찰』, 『新羅史學報』9.
- 권순진, 2013, 『철원지역 신라산성의 성격』, 『군사연구』135.
- 권창혁, 2023, 『나당전쟁기 漢山州의 關防體系 정비와 晝長城의 位相』, 『軍史』129.
- 기호문화재연구원, 2021, 『양주 대모산성 발굴조사 -8·9차 발굴조사 보고서 합본-』.
- 기호문화재연구원, 2022, 『양주 대모산성 발굴조사 -10차 발굴조사 보고서-』.
- 기호문화재연구원, 2023, 『양주 대모산성 발굴조사 -11차 발굴조사 보고서-』.
- 金瑛河, 2001 『韓國古代社會의 軍事와 政治』,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 김용, 2024, 『양주 대모산성의 조사성과와 변천양상』, 『선사와 고대』74.
- 노태돈, 2010,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원, 2001, 『파주 칠중성 지표조사 보고서』.
-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원, 2004, 『포천 반월산성 -종합보고서(I)-』.
- 頭流文化研究院, 2023, 『서울 시흥동 유적 -서울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구역(대한전선) 내 유적-』.
- 문화재연구소·한림대학교박물관, 1990, 『양주 대모산성 발굴조사 보고서』.
- 박가영, 2023, 『서울 아차산성의 축조과정과 시기 고찰』, 『서울과 역사』114.
- 박중서, 2010, 『高句麗 娘臂城 위치에 대한 검토』, 『국학연구』17.
- 방유리, 2009, 『포천 반월산성 출토 신라유물 연구』, 『史學志』41.
- 백종오·김병희·김주홍, 2001, 『京畿·서울·仁川地域 關防遺蹟의 研究 現況』, 『학예지』8.
- 白種伍, 2004, 『抱川 城東里山城의 變遷過程 檢討』, 『先史와 古代』20.
- 白種伍, 2006, 『신라 북진기 할미산성의 고고학적 검토』, 『新羅史學報』6.
- 白種伍, 2007, 『南漢地域 高句麗 關防體系 -臨津江流域을 중심으로-』, 『先史와 古代』26.
- 徐榮一, 1995, 『高句麗 娘臂城考』, 『史學志』29.
- 徐榮一, 1999, 『신라 육상 교통로 연구』, 학연문화사.
- 서영일, 2015a, 『안성 죽주산성 발굴조사의 성과와 의의』, 『안성 죽주산성의 역사적 가치 재조명』, 안성시·한국고대학회.
- 서영일, 2015b, 『신라 북진기 한강유역과 용인 할미산성』, 『용인 할미산성 발굴조사 성과와 보존활용 방안』, 한국문화유산연구원.

- 서울대학교博物館, 1990, 『한우물 -虎岩山城 및 蓮池發掘調査報告書』.
- 徐日範, 1999, 『北韓地域 高句麗山城 研究』, 檀國大學校 史學科 博士學位論文.
- 손설빈·임태용, 2024, 「호암산성 성벽과 제2우물지 발굴성과」, 『서울 호암산성, 그 여정과 도약(학술대회 자료집)』, 한강문화재연구원.
- 심광주, 2002, 「신라성곽」, 『京畿道の 城郭』, 경기문화재단.
- 심광주, 2006, 「三國時代 城郭과 二聖山城」, 『二聖山城 -이성산성 발굴 20주년 기념 특별전-』, 한양대학교박물관.
- 심광주, 2013, 「축성기법을 통해 본 대전리산성과 주변 성곽의 역사적 위상」, 『연천 대전리 산성 학술회의-대전리 산성, 매초성 인가』, 경기문화재단.
- 심광주, 2014, 「楊州 大母山城의 築造方法과 築城時期」, 『양주 대모산성의 재조명』, 한림대학교 출판부.
- 沈秀貞, 2012, 『二聖山城 出土 新羅土器 研究』, 漢陽大學校 文化人類學科 碩士學位論文.
- 심재연, 2014, 「양주 대모산성 출토 삼국·통일신라시대 토기의 검토」, 『양주 대모산성의 재조명』, 한림대학교 출판부.
- 심종훈, 2024, 『신라 석축산성 연구』, 동아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안성현, 2016, 「서울·경기·강원지역 성곽 발굴조사 성과」, 『계간 한국의 고고학』34.
- 안성현, 2018, 「경기·서울 지역 성곽유산 연구 현황과 보존·정비 방향」, 『성곽유산의 연구성과와 보존정비 방향(2018 남한산성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 안성현, 2022, 「서울·경기지역 신라성곽 연구」, 『서울·경기지역 삼국시대 산성과 불암산성(학술대회 자료집)』, 국방문화재연구원·한국성곽학회.
- 안성현, 2023, 「사적으로 본 경기도·서울·인천지역 성곽」, 『한국의 성곽유산』 I, 경기문화재단.
- 양시은, 2016, 『고구려 성 연구』, 진인진.
- 俞元載, 1984, 「『三國史記』 築城記事 分析」, 『湖西史學』12.
- 유재춘, 2001, 「江原地域 關防遺蹟의 研究 現況과 課題」, 『학예지』8.
- 陸軍士官學校 陸軍博物館, 1997, 『京畿道 抱川郡 軍事遺蹟 地表調査報告書』.
- 尹星鎬, 2018, 『新羅의 漢江流域 領域化 過程 研究』, 高麗大學校 韓國史學科 博士學位論文.
- 윤성호, 2019, 「신라 진평왕대 대고구려 전투의 의미」, 『역사와 경계』110.
- 윤성호, 2022, 「신라의 임진강 유역 진출과 대고구려 경계의 형성」, 『한국고대사탐구』41.
- 윤성호, 2023, 「한강유역 고대 관방유적 조사연구 현황 - 고양 덕절산토성과 서울 양천고성을 중심으로 -」, 『先史와 古代』71.
- 윤성호, 2024a, 「서울 호암산성의 운영과 기능의 변화」, 『선사와 고대』75.
- 윤성호, 2024b, 「나당전쟁기 칠증성 전투의 의미에 대한 고찰」, 『한국학논총』61.
- 李明植, 1992, 「慶州 南山新城碑」, 『譯註 韓國古代金石文』2,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 李文基, 1997, 『新羅兵制史研究』, 一潮閣.
- 李丙燾, 1977, 『國譯 三國史記』, 乙酉文化社.
- 이상국, 2015, 「용인 할미산성 다각형 건물지의 구조와 특징」, 『용인 할미산성 발굴조사 성과와 보

존활용 방안, 한국문화유산연구원.

- 이상훈, 2016, 「나당전쟁기 신라의 대규모 축성과 그 의미」, 『韓國古代史探求』23.
- 李銖勳, 1994, 「6세기 新羅의 村落과 匠人集團」, 『釜山史學』27.
- 이정범, 2022, 「한강유역의 고대 산성과 활용 주제 -경기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하남 역사 총서』 4, 하남역사박물관.
- 이정철·황보경, 2023, 「안산 성태산성의 조사 성과와 성격 고찰」, 『동양학』91.
- 李鍾旭, 1974, 「南山新城碑를 통하여 본 新羅의 地方統治體制」, 『歷史學報』64.
- 장창은, 2014, 『고구려 남방 진출사』, 경인문화사.
- 정원철, 2017, 『고구려 산성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 조효식, 2014, 「신라의 성곽」, 『신라고고학개론』 상, 진인진.
- 朱甫暎, 1988, 「新羅 中古期の 郡司와 村舍」, 『韓國古代史研究』1.
- 朱甫暎, 1994, 「南山新城의 築造와 南山新城碑 -第9碑를 중심으로-」, 『新羅文化』10-11.
- 차용걸, 2008, 「신라 석축 산성의 성립과 특징」, 『石堂論叢』41.
- 최종택, 2013, 『아차산 보루와 고구려의 남진경영』, 서경문화사.
- 한강문화재연구원, 2014, 『서울 호암산성 종합정비 기본계획』.
- 한국문화유산연구원, 2014, 『용인 할미山城(Ⅱ)-1차 발굴조사 보고서-』.
- 한국문화유산연구원, 2017, 『龍仁 할미山城(Ⅳ)』.
- 한국문화유산연구원, 2018, 『龍仁 할미山城(Ⅴ)』.
- 한림대학교박물관, 2002, 『양주 대모산성 -동문지, 서문지-』.
- 한백문화재연구원, 2008, 『파주 오두산성 정밀지표조사 보고서』.
- 한백문화재연구원, 2009, 『포천 반월산성 북벽 보수구간 문화재 발굴조사』.
- 한백문화재연구원, 2017, 『안성 죽주산성 남벽정비구간(Ⅳ)내 유적』.
- 한백문화재연구원, 2019, 『포천 반월성 남벽』.
-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2018, 『唐城 -제3차 발굴조사(2015년~2016년)』.
- 한양문화재연구원, 2021, 『高陽 幸州山城』.
- 漢陽大學校博物館, 1988, 『二聖山城 -二次發掘調査 中間報告書-』.
- 漢陽大學校博物館, 1991, 『二聖山城三次發掘調査報告書』.
- 漢陽大學校博物館, 2000, 『二聖山城 -第8次 發掘調査 報告書-』.
- 漢陽大學校博物館, 2001, 『唐城-2次 發掘調査報告書-』.
- 한양대학교박물관, 2021, 『성태산성 -시굴조사 보고서-』.
- 한얼문화재연구원, 2016, 『서울 양천고성지』.
- 한얼문화재연구원, 2019, 『서울 양천고성지』Ⅱ.
- 홍영호, 2006, 『新羅의 何瑟羅 經營 研究』, 景仁文化社.
- 황보경, 2016, 『역사자료로 본 삼국과 한강』, 주류성.
- 황보경, 2017, 「신라의 安城地域 진출과 의미」, 『韓國古代史探求』25.
- 황보경, 2020, 「용인 할미산성과 주변 신라 유적과의 관계 검토」, 『先史와 古代』62.

황보경, 2023, 「남한강 지류역 성곽의 조사연구 현황과 과제 -이천 설봉·설성산성을 중심으로-」, 『先史와 古代』71.

井上秀雄, 金東旭·金森襄作 譯, 1981, 『古代韓國史(古代朝鮮)』, 日新社.

【Abstract】

The Military History Meaning of the Maintenance of Military Facilities in Hanju of Silla

Yun, Sung-ho
(Hansung University)

In the mid-6th century, Silla was unable to completely control its newly acquired territory. Silla built military facilities centered on the road connecting the administrative center of Sinju and the maritime trade port with China. During this period, Iseongsanseong Fortress in Hanam, Dangseong Fortress in Hwaseong, Jukjusanseong Fortress in Anseong, and Halmisanseong Fortress in Yongin were built.

As Goguryeo began attacking Silla in the late 6th century, the situation north of the Hangang River became unstable. However, Silla thwarted Goguryeo's attempt to recover from the area north of the Hangang River through the Battle of Bukhansanseong Fortress. In this process, Silla established its rule over Sinju and intensively built military facilities to defend against Goguryeo around the early 7th century. In the area north of the Hangang River, Silla built military facilities in the Yangju Basin along the Jungnangcheon Stream and at the confluence of the Hangang River and Imjingang River. In the area south of the Hangang River, fortress were built at major strategic locations along the west coast and at the Hangang River Estuary to protect the Anyangcheon Stream and Dangseong Fortress. And to the south, military facilities were built up to the Anseongcheon Stream basin, establishing military defense system to defend administrative center of Sinju.

After the Battle of Nangbiseong, Silla moved its defense line north to the southern banks of the Imjingang River and Hantangang River to confront Goguryeo. This military defense system is significant in military history in that it was not only maintained until the fall of Goguryeo, but also provided the basis for blocking the southward advance of the Tang army during the Silla-Tang War.

Keywords : Silla, Sinju, Hanju, Military facilities, Military defense system